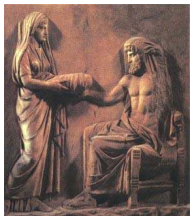
제2강 3대 마케이아 I

(1교시)

◆ 제우스의 형제들

▲ 배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크로노스에게 남긴 가이아 여신의 예언
-너 역시 네 자식들 중 하나에게 네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크로노스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하데스부터 헤라까지 강보에 싸서 삼켜버린다.
6번째 제우스는 레아의 기지에 의해 살아남.



▶ 크로노스에게 제우스 대신 강보에 싸인 돌을 주는 레아

▲ 제우스의 형제들

Cronos와 Rhea의 자식들		
Hades	Pluto	지하세계
Poseidon	Neptunus	바다
Hestia	Vesta	화로
Demeter	Ceres	곡물
Hera	Juno	신성한 결혼
Zeus	Jupiter	광명. 빛

www.artnstudy.com

▲ 하데스 (Hades : 지하세계의 신)

▶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하데스

▲ 포세이돈 (Poseidon : 바다의 신)

▶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고동 나팔수로 알려진 그의 아들 트리톤.

상징- 삼지창.

▲ 헤스티아 (Hestia : 화로의 여신)

▶옆에 있는 사람은 포세이돈의 아내 Amphitrite

상징- 불쏘시개 모양의 홀.
부엌의 여신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한 house keeper 가 아님.
그리스인은 유목생활을 하며 보금자리로 텐트를 치는 민족.
그 텐트 안을 가장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려면 텐트 중앙에 화로를 두어야 함.
화로를 주관하는 헤스티아 여신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中心)에 해당되는 여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해 준 불씨도 헤스티아 여신의 화로에서 나온 불.
-생명력을 의미하는 불씨. 시작을 의미하는 불씨.

예) 올림픽 경기의 성화(聖火)는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헤라 여신에 의해 헤스티아

www.artnstudy.com

여신의 화로에서 불씨를 가져옴.
헤스티아 여신은 한번도 올림포스 신궁을 떠난 적이 없음.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

▲ 데메테르 (Demeter :곡물의 여신)

상징- 머리에 쓰고 있는 곡물 화관.

식물화관- 데메테르 (곡물관)
아폴론 (다프네 요정을 기억하기 위해 월계관)
디오니소스 (포도넝쿨관)

로마에서는 Ceres 로 불림.
파생된 영어 단어- Cerial (케레스 여신의 선물이란 뜻)
Cerelac (곡물+젖 = 이유식)

▲ 헤라 (Hera : 신성한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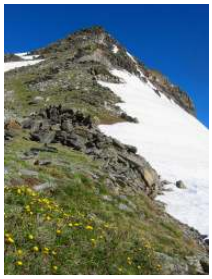
상징 - 가장 크고 화려한 홀.
원반 (일부 학자)

일부 신화학자 중에는 결혼반지의 기원을 원반으로 보기도 함.
(시작과 끝이 일정하고 끊기지 않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www.artnstudy.com

▲ 제우스 (Zeus : 광명, 빛. 신들의 제왕)

레아 여신의 기지에 의해 제우스는 크로노스에게 삼켜지지 않고,
지중해 건너 이다산 혹은 **이데산**에서 산양을 돌보는 요정들 (**아말테레이아**)에 의해 키워짐.



▶ 이다산
(트로이 바로 옆에 있는 산. 오늘 날은 터키에 속해 있는 산)

▶ 아말테레이아에 의해 정성껏 키워지는 제우스

제우스의 최초별칭- 산양젖을 먹고 지낸 자.

(2교시)

www.artnstudy.com

◆ 운명을 개척하는 제우스

▲ 메티스 여신의 충고

장성한 제우스는 Metis 여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다섯 남매를 구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함.
메티스 여신은 지혜로운 **충고**의 여신.
제우스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자, Athena를 잉태함.

메티스 여신의 조언대로, 레아 여신을 찾아가서 크로노스의 시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
시종이 되어서 nectar (신들이 마시는 음료) 와 ambrosia (신들의 음식)를 주관하게 됨.
넥타르와 암브로시아에 아주 소량의 토제를 넣음.

▷ nectar (신들이 마시는 음료) 와 ambrosia (신들의 음식) 는
영생불사를 이어가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 Styx 강

하데스 앞을 감싸며 저승 앞을 흐르는 강.
생명체가 없는 것을 넣으면 녹이지만,
생명체를 담그면 스틱스 물이 묻은 모든 것은 불사한다. (예: 아킬레우스)

맹세의 강 - 제우스는 이리스(Iris : 무지개 여신)를 시켜서
항아리에 스틱스 강물을 받아오게 하여, 자신이 주관한 올림포스 신들의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이것을 맹세의 강이 되게 하자 약속.
스틱스 강에 걸고 한 맹세를 어기면
9년 동안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취하지 못하게 함.
그렇다고 해서 불멸의 공간에서 사는 신들은
필멸의 공간에서 나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우 숨만 쉬며 연명하게 되는 신들은
결국 자신의 일을 주관할 수 없음.

-평등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 신궁을 건설하는 제우스

www.artnstudy.com

크로노스는 토제에 의해, 제우스로 착각하여 삼킨 돌부터 하데스까지 모두 토하게 됨.
장성한 제우스에 반해 남매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들의 모습으로 토해진다.

제우스의 두 번째 별칭 - 나중 태어났으나 먼저 된 자.
하데스 - 먼저 태어났으나 나중 된 자.

크로노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상실하여 세상 끝에 유배, 타르타로스에 감금.
-철학적 해석: 그 순간부터 시간은 인간의 인식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 위 하늘에 신궁(천궁)을 건설한다.

▶ 올림포스산.

▲ 왜 제우스는 신의 제왕이 되었음에도 오뤼튀스 산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올림포스 산에 신궁을 건설했나 ? 왜 삼촌, 고모들과 한 가족으로 살지 못했나?

-제우스가 제 3대 제왕임을 인정한 건 가이아 여신 밖에 없다.
(크로노스에게 한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티탄신들은 조카뻘이자 크로노스 시종이었던 아이가 크로노스를 내쫓고 제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자신의 형제들과 올림포스 산으로 간 건 제우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www.artnstudy.com